



세계관으로서의 모더니즘

김종철

“이성의 자율성을 기초로 한 진보와 보편성의 추구”

(1) 모더니즘의 기원

모더니즘이 발생한 시기에 대해서는 일치된 견해가 없기 때문에 대충 1470년의 이탈리아 르네상스 이후부터 1700년의 계몽주의 사이의 어느 시기에 발생한 것으로 보면 족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서양에서는 중세에서 근대(모던)로 이행해 왔습니까? 중세가 철저하게 기독교적 사고의 바탕에 있지 않고 헬라 철학 영향과 혼재되어 있었다는 사실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헬라 철학 중 이원론(영적이고 종교적인 것은 그 자체로 선하고/우월하고, 육체와 비종교적이고 일상적인 것은 악하다/열등하다는 생각)은 그 뿌리가 플라톤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중세에도 어거스틴이나 아퀴나스와 같은 사상가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쉐퍼의 분석에 따르면 이원론의 초기인 중세에는 별 문제가 없는 듯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런 식의 사고로 인해 성경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해 말씀하고 계신다는 복음의 총체성이 조금씩 무너져갔고, 성경이란 단지 종교적인 영역에 대해서만 의미가 있는 것으로 치부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자율적인 영역의 인정은 소위 “자연이 은총을 잠식”하는 결과를 낳아, 사람들은 점점 성경이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영역에 대해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 왜 다른 영역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다고 해야 하는가? 까지 나아갔고 총체적으로 계시를 부정하는 근대인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2) 우리는 누구인가?

과거에는 인간 자체를 의존적인 존재로 보았습니다. 피조물인 데다가 타락한 존재이므로 신에 의존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으며, 계시에 의존하지 않고는 불완전한 진리 밖에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모더니즘 하에서 인간은 완전히 자율적인 존재가 되어 버립니다. 자율성(自律性) autonomous이라는 말 그대로 인간의 운명이건 세상의 운명이건 간에 그 운명을 인간 자신이 결정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또한 계시의 권위가 인간 이성의 자충족성으로 대체가 됩니다. 즉 인간의 이성을 최대한대로 사용한다면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고도 궁극적인 진리에 도달할 수 있고, 이성 사용 그 자체는 인간에게 선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이 문서는 라브리 웹사이트에서 내려받은 것으로, 개인 및 그룹 공부를 위해서만 인쇄, 복사, 배포 등이 허가되었습니다.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하려면 별도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라브리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This document was downloaded from L'Abri Korea. Printing and distribution are permitted only for study purposes. For all other uses, please obtain permission from L'Abri. L'Abri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is document.

(3) 우리는 어디에 사는가?

과거에는 인격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피조물 중에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이므로 하나님과 인간은 연대성 내지 연속성이 있고, 인간과 자연 사이에는 불연속성이 있지만, 무한의 측면에서는 하나님만이 무한하시므로 인간과 다른 피조물은 연대성 내지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게다가 어느 의미에서는 자연 역시 인간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그 자체로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 창조된 피조물이므로 인간을 매개하지 않고도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존재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인간이 자연을 대하는 태도는 지배하는 것과 돌보는 것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존재의 영역에서 제거하고, 계시의 권위를 이성으로 바꿔버린 모더니즘 하에서는 유일한 주체는 인간이고 다른 피조물인 자연/세계는 단순히 그 인간의 인식, 조작과 지배의 대상인 객체/기계로 전락하게 되고 맙니다. 따라서 인간의 역할 역시 돌보고 보존하고 섬기는 것은 제외되고 단순히 자연을 정복하고 이용하는 것에 국한하는 것으로 파악하게 됩니다.

인간과 다른 피조물에 대한 모더니즘이 이러한 입장은 독특한 형이상학을 발전시키는데, 소위 소박실재론 내지 현전의 형이상학이라는 것이 그것입니다.¹⁾ 인간은 거울이나 사진처럼 세계를 있는 그대로 인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앞에서 말한 인간 이성이 자충족적이기 때문에 세상을 투명하게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4)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해결책인가?

이러한 인간상, 세계상, 그리고 특히 소박 실재론에 기초해서 모더니즘은 인간의 진보와 보편성의 실현을 목표로 삼아 유토피아를 이 땅에 세울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무지와 전통, 미신이나 종교 같은 비합리적인 것들이 이성의 발목을 잡지만, 이런 악들을 제거하고 나면 이상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더니즘의 자율적인 인간상과 자충족적인 이성, 보편성과 진보의 추구 그리고 소박 실재론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성이 자충족적이기 때문에 그 이성의 사용에 방해가 되어온 여러 걸림돌인 전통, 무지, 종교, 신화등을 제거하고 나면 모든 사람이 이 세상을 존재하는 그대로 보게 될 것이고 그렇게 이 세상을 잘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세상을 잘 이용하면 모든 사람들이 경제적인 부를 누리게 될 것이고 이것이 바로 진보라는 것입니다.²⁾ 따라서 모더니즘은 16-17세기의 '과학의 시대'에 자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18세기 '기술의 시대'를 맞이하여 세상을 이용하는 방법을 터득했고, 19세기 이르러서는 그것들을 기반으로 경제적인 부를 산출하는 '경제의 시대'로 나아간 것입니다.

〈세계관으로서의 모더니즘〉

중요한 신념들	모더니즘
①어디에 사는가?	객관적으로 인식가능하고 힘으로 지배가능한 객체로서의 세상
②누구인가?	자율적自律的autonomous 인간, 자충족적인 이성의 소유자
③무엇이 문제인가?	무지와 미신 전통, 종교
④무엇이 해결책인가?	진보와 보편성의 실현

(5) 기독교적인 비판

이러한 모더니즘의 형성에 역사적으로 기독교가 기여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 핵심 사상에는 다분히 반기독교적인 헬라 철학의 영향이 지대하였습니다. 성경적인 입장에서 볼 때 모더니즘의 기초인 인간의 자율성은 창세기2:17, 3:5의 타락의 원인과 그 맥이 닿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되려는 인간, 선과 악이라는 근본적인 지식을 스스로 결정하려는 인간의 모습이 그것입니다. 또한 진보와 보편성이라는 모더니즘의 목표는 창세기 11장4절에 나타나는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이상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들의 슬로건은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진보),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흠어짐을 면하자(보편성)!”였습니다. 모더니스트들은 하나님을 보좌에서 끌어내리면 자기 자신, 인간의 이성이 그 보좌에 오를 수 있을 것인 양 생각하였지만, 결국 로마서1:21처럼 피조물을 섬기는 지위로 전락하고 말았는데, 바로 과학주의, 기술주의 그리고 경제주의라는 우상에 종노릇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성경적인 비판〉

세계관을 구성하는 중요한 신념들	모더니즘	성경
①어디에 사는가?	기계/객체로서의 세상	창1:18, 2:25
②누구인가?	자율적 인간	창2:17, 3:5
③무엇이 문제인가?	무지, 전통, 종교	롬1:21
④무엇이 해결책인가?	진보와 보편성	창11:4

그러나 이러한 모더니즘이 심각한 타격을 입은 것은 신학자들의 공격이 아니라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의 공격이었습니다.

(“세계관으로서의 포스트모더니즘”에서 계속)

- 1) 실제의 인식과 관련해 크게 3가지의 입장이 있는데, 소박 실재론, 비판적 실재론, 구성주의가 그것이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면 다음과 같다. 3명의 야구 심판이 볼과 스트라이크를 어떻게 구별하고 있는지에 대해 대화를 하고 있었다. 가장 나이가 들어 보이는 심판이 “나는 볼로 오는 공은 볼로, 스트라이크로 오는 공은 스트라이크로 선언하지”라고 하자, 그 옆에 있던 심판이 “나는 내 눈에 볼로 보이는 공은 볼로 스트라이크로 보이는 공은 스트라이크로 선언해”라고 하였다. 그러자 가장 젊은 심판은 “나는 내가 볼, 혹은 스트라이크로 선언해야 비로소 볼, 스트라이크가 돼” 여기서 첫 번째는 소박 실재론을 두 번째는 비판적 실재론을 마지막은 구성주의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 2) 예를 들어 설명해 보자. 어느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달을 그려보라고 하였다. 그러자 A는 웃고 있는 달을 그렸고, B는 토끼가 계수나무 옆에서 방아를 찧고 있는 그림을 그렸다. C는 평범한 둥근 모양의 노란 색 달 그림을 그렸고, D는 분화구가 있는, 마치 달을 인공위성으로 찍은 것과 같은 그림을 그렸다. E는 달이 아닌 산을 그렸다. 선생님은 E는 병원에 가보라고 하면서 집으로 돌려보냈고, A와 B는 너무 동화책이나 이야기책을 많이 읽어서 문제라고 하면서 그런 것들은 그만 읽으라고 꾸중을 하였다. C에게는 그런 대로 잘 그렸다고 하셨지만 조금 더 노력하라고 하셨다. D를 보고는 “너는 정말 제대로 그렸어”라고 칭찬하시면서, 다른 학생들에게 “너희들도 D처럼 그려야 했어! 더 열심히 생각하고 노력하면 모두 D처럼 그릴 수 있을 거야!” 그리고 “D처럼 그려야 달을 정복하고 거기서 나오는 자원을 이용해 잘 살 수 있지, E처럼 엉뚱하게 그리거나 A나 B처럼 낭만적으로 그려서야 어떻게...”라고 하시면서 혀를 끌끌 차셨다.